

news1

'광화문 천막' 공화당 상대 서울시 손배청구 각하

박승주 기자 입력 2020.01.07 11:24

서울시에 지난 2일 철거비용 2억6000만원 완납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와 관련한 손배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으로부터 철거 등과 관련한 행정대집행 비용 2억6000여만원을 모두 받아 상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7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장 판사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소 취하를 검토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전례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한달 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의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2차 대집행을 앞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고, 서울시는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도 "적법하지 않은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는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 1. 7.

'광화문 천막' 공화당 상대 서울시 손배청구 각하 | Daum 뉴스

다만 이번 판결 선고 전인 지난 2일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서울시에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도 납부했다.

parksj@news1.kr